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신상
별인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우 137-04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6 FAX (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2

1998

제4권 제 2호 통권32호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해 소비부진 극복해야

남 두 희
한국계육협회 상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파로 국내 소비시장이 얼어붙게 되고 최근 닭고기소비도 회사별 차이는 있지만 30 ~ 40%까지 격감해 계육산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환율인상으로 배합사료가격, 유류대 등 에너지 비용은 급상승하였고 소비부진에 따른 도계가공장 가동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조업단축이 되고 있는데다 뉴코아, 해태상사, 블루힐, 나산 등 대형유통업체의 부도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 UR타결과 WTO체제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변화에 먼저 노출된 계육산업계는 여타 산업계에 비해서 일찍 구조조정을 거쳐 종계·부화, 배합사료, 계열사육, 위생적인 도계가공시설 확충, 자사브랜드에 의한 유통구조 개선, 소비확대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피나는 연구노력의 결과로 생산비 인하와 경영합리화에 각 계열주체의 수고는 물론 계열화자금지원 등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으로 이어져 오늘에 와 있다.

십수년전 육계산업이 호·불황의 연속으로 투기산업화 되어 입추시기만 잘 맞추면 떼돈을 번다든가, 사료의상값 때문에 가족이 야반도주하는 농가는 최근에 볼 수 없게 되었다. 육계인들이 3년주기로 회의에 참석하는 얼굴이 바뀌는 현상도 사라지고 한 탕 벌어 채란업, 양돈업으로 전업하는 사례도 최근에는 많이 줄은 것 같다. 1천6백여 계열사육농가 중에는 열심히 사육에 전념해 수고한 만큼 얻은 소득으로 안정된 가계를 꾸려나가는 육계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노력이 업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정책부재와 방만한 차입경영에 따른 국가경제위기 때 따른 내수기반 붕괴로 계열주체들은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헛되지나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규모화에 따른 국제적인 수준의 위생적인 대단위 도계가공장

건립, 효율성 높은 종계·부화장 신축, 가진물의 불완전 비닐계사에서 생산성이 높은 완전계사의 육계사 신축,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브랜드 닭고기 유통이나 부분육·닭고기 가공품 개발, 닭고기 제품의 KS획득, ISO인증 등 지난 4~5년간 계열주체들의 노력이 이번 위기로 흑자도산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 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 계열화업체에 국내 역사 이래 최초로 기업경영자금 3백89억원(2차 4백30억원 추후확보 지원예정)을 지원하여 1천6백여 계열농가, 3천여 납품업체, 2천여 유통업체 그리고 임직원 4천여명이 안심하고 계육산업에 종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한 바 있다.

계육업계는 이번 정부의 능동적이고 시기적절한 판단의 정책지원으로 단기적인 해갈을 면했으나 작금의 국가경제위기가 방만한 외채차입에서 비롯된 만큼 타산지석으로 삼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경영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계열업체 기업경영자금지원에 대해 업계는 간의 계열주체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사육비나 사료비 정산, 자재현찰구매 등에 우선 지출해 줄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측면의 어려움만 해결하는 경우 당장은 휘파람을 불겠지만 이제부터 더욱 가중되는 국가 전반적인 어려움 경제상황속에 제 2, 제 3의 지원을 바라는 결과가 올 것이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계육업계가 최근의 소비부진 상황을 당연시 하여 생산구조를 전면 재조정해 50%감산 등 축소지향적으로 전환을 피하고 있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대로 간다면 80년대 오일쇼크 시대로 회귀하고 업계가 와해될 수도 있어 걱정이 앞선다.

<3면으로 계속>